

# “문화 나눔의 거리 예술路 오세요”

예술의 거리 확대지정 이끈 안철환 번영회장

“예술의 거리 확대지정을 계기로 도심공동화로 침체된 예술의 거리가 시민과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동구 대동의 예술의 거리 번영회 안철환(51) 회장과 상인들의 바람은 ‘예향’ 광주의 상징이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가 시민들의 품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예술의 거리에서 지난 23여년 동안 ‘진다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안 회장은 지난해 8월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5개월여동안 이 같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밟았고 뛰어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예술의 거리 확대 지정 사업이었다. 안 회장은 지난 20~30년간 예술의 거리를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구간과 사업계획을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1987년 동부경찰서~중앙로 300m 구간이 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이후 23

년만에 가톨릭 센터~중앙초교 후문 입구 303m 구간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4년 전 설치된 이후 관리부족으로 예술의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는 루미니나리에 철거 여론 형성도 주도했다. 직접 밭로 뛰며 번영회 상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동구에 제출했다.

“광주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확대 지정된 구간의 도로, 간판 정비사업은 물론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예술의 거리에 자리 잡은 각종 전시장, 공연장, 화랑, 문화체험장 등과 새로 지정된 거리의 서화, 도자기, 공예품, 판소리 공간이 한데 어울리는 변화된 예술의 거리가 탄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예술의 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연말 ‘가보고 싶은 거리, 신나는 예술로’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매달 무료감정 행사와 정기적인 경매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안 회장 등 예술의 거리 번영회 회원들의 새해 계획은 인근 광주 중앙초등학교를 현대미술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건물 일부분을 이용해 예술의 거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꼭 한번은 들리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준호·이하정 아나운서 올봄 결혼



정준호(41)가 MBC 이하정(32) 아나운서와 올봄 결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준호는 이

날 오후 방송된 KBS 라디오(106.1MHz) ‘임백천의 라디오 7080’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정준호는 진행자 임백천의 “식은 언제쯤 올릴 생각이냐?”는 질문에 “일단은 좋은 날짜를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그러면 봄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하정 아나운서는 2005년 MBC에 입사해 ‘뽀뽀뽀’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6시뉴스’의 진행을 맡고 있다.

김아중 고려대 언론학 석사 취득



연기자 김아중이 스릴러 영화의 관객 심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고려대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다고 소속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가 4일 전했다.

김아중은 최근 ‘감성 육구와 인지 육구가 감정의 강도 및 영화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스릴러 영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큰나무, 독거노인 1000명에 밀반찬



광주광역시 노인복지법인 사단법인 큰나무(이사장 박용운)는 최근 중증 장애자 및 독거노인 1000여명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밀반찬을 무료로 제공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아들 못다한 꿈 펼쳐주세요”

연평도 故서정우 하사 부모 단국대에 장학금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광주출신 서정우 하사의 부모가 고인의 모교인 단국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단국대는 4일 오후 2시 천안캠퍼스를 방문해 장호성 총장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 하사는 지난 2008년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에 입학한 뒤 1학년을 마치고 2009년 해병대에 입대, 전역을 불과 한 달가량 남기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특히 서 하사는 말년휴가를 떠나기 위해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던 중 북한의 포격 사실을 알고 자

김씨는 또 “장례기간 동안 아들을 애도해준 단국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를 위로가 아들을 잊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 하사는 지난 2008년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에 입학한 뒤 1학년을 마치고 2009년 해병대에 입대, 전역을 불과 한 달가량 남기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쏜 포탄 파편에 맞아 전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특히 서 하사는 말년휴가를 떠나기 위해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던 중 북한의 포격 사실을 알고 자



왼쪽부터 고 서정우 하사 어머니, 아버지, 장호성 단국대 총장, 김형남 법학 교수.

진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숨져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단국대는 서 하사가 전사한 다음날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추모 게시판을 만들어 고인을

애도했으며, 성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단국대는 오는 2월 18일 학위수여식에서 서 하사에게 명예 학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KIA ‘김동재 코치 돋기 일일호프’

8일 진월동 밀러타임…선수들 애장품 등 판매



〈김동재〉 〈최희석〉

KIA타이거즈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김동재 코치 돋기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KIA타이거즈 구단과 선수단 상조회(회장 최희석)는 8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광주시 남구 진월동 밀러타임 빙스포점에서 김동재 코치 돋기 일일호프를 연다.

선수들은 애장품 판매와 서빙을 하며 도금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인회도 열린다. 구단은 사인볼과 모자 등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김동재 코치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KIA 선수단이 웰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해 수 있도록 스폰을 해온 빅스포(하상호 대표이사)도 장소를 무료로 제공했다.

상조회장인 최희석은 “김동재 코치님이 하루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우리 선수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

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일일호프를 마련하게 됐다. 일일호프을 준비하면서 선수들 모두 서빙 등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등 팀워크도 활발 좋아졌다”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김동재 코치는 지난해 6월 21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조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일호프에는 만 19세 미만은 출입을 할 수 없다. /김여울기자 wool@

광산구청 오경수씨

‘청렴공무원’ 포상금 기부



4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오경수(57) 총무과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종무식에서 처음 제정된 청렴 공무원에 선정돼 민행배 구청장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오과장은 시상식이 끝난 후 협회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써 달라며 관계 부서에 포상금 전액을 기탁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나무, 항아리 등으로 15개 소공원을 조성하고 회로에 놓여 있는 100인상·2009년 항아리 수생식물 공원을 만들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청 전석환씨

‘2010 환경미화 달인’



진도군청 행정 달인으로 군내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전석환(45)씨가 뽑혔다.

전씨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0 지방행정의 달인’ 최종 29인에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시도별로 선정된 313명에 대한 현지실사와 최종 심사를 마쳤다.

달인으로 선정된 전씨는 공간 개선부문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조형물 제작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대나무, 항아리 등으로 15개 소공원을 조성하고 회로에 놓여 있는 100인상·2009년 항아리 수생식물 공원을 만들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광주대 김훈 입학관리과장 교과부 표창

김훈 광주대 입학관리과장이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과장은 입시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처음으로 OMRCard를 도입하는 등 대학 전산행정자동화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새날학교 방문 그룹 CN블루 ‘사인회’



3일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 초청으로 광주 새날학교를 방문한 인기 그룹 CN블루 멤버들이 사인회를 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사)호남미래연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 종친회

▲이요형·김모현씨 장남 재청군 안기석(광주시 시민소통과장)·임순애씨 장녀 지현양=8일(토) 오후 12시 40분 힐리데이인호텔(구 베를루션) 2층(라벤더홀)

▲박행용(변호사)·김기영씨 장남 진진군 권오경·정귀숙씨 장녀 민수양=8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월광교회 2층(은혜홀)

####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정병섭) 월례회=5일(수)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구립초등학교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정기총회=8일(토) 오후 5시 30분 해미연, 062-383-4999.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법원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23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메뉴얼, 특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비빌 노인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실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침,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062-231-8902.

▲조승현(전남대 지리학과 퇴임교수)씨 별세 화석·우석씨 부친상=발인 5일(수) 광주 그린장례식장 12호실. 062-530-2680(학과 사무실).

▲나기주씨 별세 이우행·기행·임순·송신·영애·연례씨 모친상=발인 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